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8월 4일(금)
--(음력 6월 18일)--
Пятница
4 августа 2023 г.
№ 30 (1204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의 첫 일요일에 러시아에서 철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 이 직업적 명절은 8월 6일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철도역.

(이예식 기자 촬영)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건설회사 임원들과 미팅을 가졌으며, 가까운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사할린주 건설업체들은 매년 최소 50만 m²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과제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긴급 노후주택 재개발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 시설물, 그리고 공공 및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사할린 주는 2년 연속 사할린과 쿠릴 주민을 위해 주택 50만m², 즉 약 7,0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 물량의 3분의 1은 주택 재개발 및 수요가 있는 전문가들을 위해 건설되는 사회적 및 임대 주택이다.

지역 정부의 노후주택 복구작업 불가능한 주택 재배치 작업의 효율성으로 인해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사할린주 정부는 러시아 예산에서 190억 루블리의 지원을 받았다. 이는 러시아 내 모든 지역 중 가장 큰 액수다. 2021년부터 이미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새로운 집에 입주했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주택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 부지가 지

사할린주 건설분야 대규모 작업

정되어 있으며, 향후 5년 및 수십 년 후에도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사회, 도로, 공공 및 기타 인프라가 갖춰진 대규모 주거 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그 예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남쪽에는 '고리존트'라는 아파트단지가 건설중이고, 북쪽에는 '우윤 파크'가 건설되고 있다.

"신도시 '우윤'지역은 대형 건설사인 '픽(PIC)'이 12만 m²의 주택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18만 m²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계획은 향후 3년 동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는 사할린의 건축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극동 모기지' 및 기타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구매를 돕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대부분의 가정에게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사할린주 건설부 장관 알렉세이 콜레와

티흐가 언급했다.

사할린 주에서는 많은 사회적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안에 아나와에 어린이 예술학교와 체육 및 휴양시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마야초크" 사회 재활센터를 준공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3년 까지 사흐초르스크에는 문화개발센터와 400석 규모의 학교와 보육원, 노워트로이츠코예와 아도-티모보에는 마을 문화회관,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무술 스포츠학교, 노글라키와 쿠릴스크에는 학교, 쉬코탄의 크라보자보드스크에는 유치원을 완공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사회적 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예로 가즈프롬의 재정지원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체육관과 수상 스포츠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지원금 형태로 지급된 재정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흠스크, 우글레고르스크에 5개의 의료진료소와 주립 병원의 수술실, 친환경 가스 연소 보일러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그중 가장 큰 규모

의 협약 공사 중 하나는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고급 캠퍼스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산업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대규모 우회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8km 구간은 내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 구간이 완공되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내에는 화물운송 트럭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산업 시설은 우회도로로 이전되고 도시 내 토지는 지역 통합 개발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 모든 작업은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할린에 거주하고 싶은 주민 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할린의 건축업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사업가들과 대화할 준비와 신속하게 해결책을 함께 찾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작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주지사가 강조했다.

단신

사할린, <오스트로와>전 러시아 청년 포럼 개최

오는 8월 8일, 사할린에서 <오스트로와>전 러시아 청년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사할린과 기타 러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14세부터 35세의 까지 청년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은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영화제도 이루어진다. 포럼 참가자들은 올림픽 선수, 영화 감독과 배우, 대규모 러시아 기업 대표 등과의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올해 포럼 참가 신청을 한 5500여 명의 지원자 중 500명만 선발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연방청년청의 장려금 지원 공클에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은 8월 9에 공식 개막식을 진행하며 13일에 폐막될 예정이다.

사할린 출신 선수, 우과 하계 농아인 올림픽에서 은메달 획득

사할린 출신 태권도 선수 김 이고르가 제1회 하계 농아인 올림픽 <우리 함께, 스포츠>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김 이고르는 58kg 이하 체급 겨루기 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 대표선수 아얀 압드라쉬에게 패하여 2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우과에서 열렸으며, 이번 대회에서 21개 종목의 경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우리 함께,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하계 농아인 올림픽에는 30개국에서 2,000여 명의 농아 선수들이 참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소년 역사캠프 열려

지난 8월 1일(화)에 2023 청소년 역사 캠프인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사할린주의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과 특수작전 참전자 자녀들을 포함해 총 25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10일 동안 러시아 및 사할린주 역사에 대한 행사, 한민족 공예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교실, 요리교실, 한국의 전통 무술, 초급 군사준비과정 등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한국과 러시아 문화를 체험할 것이다.

쿠릴열도 북부에서 두 차례 지진 발생

지난 2일(수) 쿠릴열도 북부에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감지되었다.

온라인 지진 모니터링 서비스인 Equalert.ru에 따르면, 사할린 시간으로 20시 22분에 4.3도의 첫 번째 지진이 라슈아섬 근처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지진은 사할린 시간으로 22시 35분에 시무쉬르 섬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진도는 4.9였다. 가장 가까운 주거 정착지인 파라무쉬르와 이투루프에는 진도 1이하의 약한 진동이 있었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주, 우유 및 온실 재배 채소 생산량 증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최한 회의에서 2023년 상반기 농업과 상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현재 사할린 주는 감자, 온실 채소, 달걀 등이 극동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들이 최소한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경제적 형태의 절약형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사할린 지역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27,000톤의 우유를 생산했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투자전략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린 아그로 사할린>은 1,900마리의 젖소를 수용할 수 있는 가축 사육 시설과 하루 120톤의 우유를 가공 처리 가능한 공장을 도입하고 이에 힘입어 "소브호즈 코르사콥스키"는 우유 생산성을 많이 높였다.

그리고 온실 재배된 채소 생산량은 올해 초부터 거의 5천 톤을 넘어서 수확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의 도입과 고효율 품종의 사용으로 섬 지역의 자급자족이 증가하고 있다.

"사할린주는 농업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비료 투입과 토지 개간 조치의 보조금이 작년에 인상되었으며, 국가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메커니즘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라고 농업 식품부 장관 인나 파블렌코가 전했다.

사할린주는 달걀(연초부터 6,100만 개 이상)과 감자 생산량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극동 지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감자의 높은 수확량의 주요 핵심 요소는 다양한 품종 개발과 종자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일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엘리트 번식 종자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할린 지역 생산자들은 지역 예산 지원으로 종자 구입 비용을 보상받는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약 4분의 1 이상은 섬지역 농업 및 식품 산업에서 생산된다. 현지 생산의 발전으로 섬 주민들은 연중 고품질과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사할린에 절약형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다. 현재 153개의 소셜 네트워크 상점이 주내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마진으로 가장 인기 있는 40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이 목록에는 빵, 육류, 가공류, 생선, 계란, 버터 및 식용유, 밀가루, 곡류, 면류, 유제품, 소시지, 감자, 채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절약형 소셜 네트워크 외에도 산간지역 마을에서 운영되는 지역 생산자들의 파빌리온과 이동식 매장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매장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매 및 유통 센터와 함께 농업 단지가 건설 중이며, 이를 통해 사할린 지역 주민들에게 연중 신선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온도 조절 시설과 식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간이 포함된다. 농업 단지의 개장으로 저장 손실이 줄어들고 지역생산품의 가공량이 증가할 것이다.

사할린 주, 약 3,500가구 재정 상황 나아져

올해 초부터 시행된 "빈곤 대책" 프로젝트로 사할린과 쿠릴주민 12,136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최한 '2023년 상반기 회의'에서 사업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러가지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주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이 단 한 건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할린 주정부 수장들과 그에 대한 적절한 과제를 세웠습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전했다.

현재 사할린주의 빈곤율은 3.8%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마다 개별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생 및 양육에 따른 통합수당과 개별적인 식량지원 등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취업 및 직업 연수도 지원 받는다.

"사회적 계약도 효과적인 조치로 채용 된 가운데 올해

이미 377명이 빈곤 대책 프로젝트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개인 자회사 농장을 개발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사할린 주 사회복지부 장관 올라 오를로와가 언급했다.

"빈곤 대책"프로젝트는 주지사 주도 사업으로 "보살핌, 지킴, 존중"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 구성 요소이다.

사회적 지원책에 힘입어 연초부터 사할린 주민 597명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자녀가 출생한 가정은 주택 구입 또는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백만 루블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과 1, 2급 장애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 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외 또다른 지원책으로 음식 및 의약품 배달, 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 돌봄, 어린이 보육시설, 구직, 주택 수리, 법률 상담, 심리 지원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사할린주, 평균 수명이 6개월 더 늘어났다

사할린주 지방 정부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개최한 2023년 상반기 결과 발표 세션에서 보건의료 분야 문제를 보고한 가운데 이는 사할린주에서 의료서비스 전략의 성공을 입증하는 지표로 평균 수명은 이제 71세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할린주의 의료 발전 전략은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약 78,000 명의 주민들은 현대적인 진단 센터에서 심층 검진을 받았다.

"올해 말까지는 14만 명의 환자를 검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인 악성 종양과 순환계 질환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라고 사할린 주 보건부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가 보고했다.

의료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이 섬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첨단 의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1,098건의 중요한 수술 중 938건을 사할린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종양학과, 안과, 산부인과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다.

사할린 주에서는 각 의사의 근무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 전문의 일정 구성 업무는 의료 기관들에서 지역 보건부의 프로젝트 사무실로 이관되었다. 환자 대기자 명단 작성도 효과적인 혁신이 되었다. 이로인하여 대기목록에 등록된 환자는 하루안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편리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병원 및 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 수가 30% 증가했다.

주지사 결정에 따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예방차원의 검진 계획이 수립되었다. 미리 등록된 환자에게는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개인 도우미가 지정된다. 조제실 관리자 또는 '건강 가이드'는 환자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돕고, 검사 일정을 상기시켜 주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품을 제공하며, 환자를 위해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올해에는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이동 의료부대의 운영 계획도 수립되었다. 이동 의료부대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 지원되는 82명의 전문의들은 지방 자치체를 방문하여 정규 의사가 휴가또는 병가로 공석이 되거나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의료 기관을 대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전문의들의 명단은 해당 지역의 환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저희는 주민들과 만남에서 항상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문제를 듣곤 합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통계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료 인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보건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할린의 지역 의료기관들은 경쟁력있는 임금과 숙소제공 등의 혜택을 통해 직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더 많은 의료 인력을 모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반투이 행사 개최

지난 7월 2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공원에서 타타르인의 전통 축제인 '사반투이(Sabantuy)'가 열렸다. 이 날 파종 작업 마무리를 축하하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부시장인 드미트리 하이브리에브가 행사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는 주 중앙도시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언급하고,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대해 유즈노사할린스크 타타르 민족문화자치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이들은 관객들에게 각자의 공연을 선보였다. 민속 앙상블 "두슬리크", 모범적인 무용단 "사할린스키에 이스코르키", 카자크노래 앙상블 "제르자와", 보컬댄스 그룹 "아크엘레체", 아르메니아인 댄스 그룹 "나자니", 앙상블 "스플래시", 솔리스트 에브게니 스미르노프와 알렉세이 프로호로프, 오히의 민족문화 앙상블 "산두가츠"등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는 카잔의 아티스트들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또한, 사반투이 참가자들에게는 자국의 전통 요리를 만들어보는 기회와, 타타르의 전통 레슬링 '코레시'와 기타 민속 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그리고 민속 공예품 전시회로 "손님을 위한 타타르의 집"이 설치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프로그램도 실시되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Сабантуй

Татарский праздник Сабантуй отметили 29 июл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родные гуляния в честь окончания посевных работ собрали сотни горожан,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э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Гостей поздравил вице-мэр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живают десятки этносов и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тата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ов и инициатив по сохран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яркую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вои номера зрителям представили национ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Дуслык», образцовы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Сахалинские искорки», ансамбль казачьей песни «Держава», вокально-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Ак Элечек», армян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НАЗАНИ», Ансамбль «Сплэш», солисты Евгений Смирнов и Алексей Прохоров, ансамбль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андугач» (Оха). Специальными гостями стали артисты из Казани.

Также участникам Сабантуя предложили приготов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татарской борьбе корэш 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грах. Кроме того, на празднике работала выставка народно-

го творчества, инсталляция "Гостевой татарский дом" и детская 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с игровой программой для юных горожан.

7월 마지막 토요일, "아니와 스프린트 2023"개최

지난 7월 마지막 토요일에 아니와 지역의 쿠바네츠와 페스찬스코에 마을에서 전통적인 아니와 스프린트 트리아슬론 경기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18세 이상의 109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사할린 주 스포츠부에서 전했다.

이 대회는 이미 7회째로 개최되었으며 매년 약 100여명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

아니와 스프린트 트리아슬론은 수영, 사이클링, 달리기 3개 단계로 이루어진 대회이다. 참가자들은 750m 수영, 20km 사이클링, 5km 달리를 완주해야 했다. 이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었다.

대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키릴 스미르노프가 1위를 차지했다. 그는 01:05:13.2 기록으로 모든 단계를 완주했다. 그리고 안톤 바카이가 01:10:17.54로 2위, 막심 유라츠콥스키가 01:10:54.81로 3위를 기록했다.

팀 부문 최고 기록은 "에델바이스" 팀이 01:00:45.44로 1위, "XFIT" 팀이 01:05:15.06로 2위, "스웨트올리" 팀이 01:10:16.62로 3위를 차지했다.

(8면에 계속)

사업계획서-사할린 동포 이예식 작가 초대 사진전 "사할린, 기록되지 않은 역사"

■ 사업목적

○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제작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존재인 사할린 한인들을 알리기 위함.

○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망각하려는 시대, 역사의 망각은 우리의 역사를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한민족 공동체에게서 대일 역사정의는 망각이 아닌직시와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통해 제기하고자 함.

○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동포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영주귀국사업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지키고 알릴 수 있는 <사할린동포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

■ 사업내용

○ 2016년 사진집 "귀환"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사할린 동포를 알린 이예식 새고려신문 기자의 사진과 킨이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15년이 넘게 방문하며 남긴 사진 등 자료를 통하여 사할린 동포의 삶을 소개.

■ 주최

○ 주최/주관 : KIN(지구촌동포연대)/ 갤러리 인덱스

○ 후원 : 4.9통일평화재단/ 눈빛출판사

■ 일정

○ 전시기간 : 8.12(토)~21일(10일간)
○ 전시장소 : 갤러리 인덱스 <http://www.galleryindex.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길 45 인덕빌딩 3층
<https://goo.gl/maps/QbQVwWAiuWXgEWjj6>
○ 오프닝 및 작가와의 대화 : 8.12(토)
○ 전시 연계 행사 : 8.15(화)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셔?" / 오승철

솔뚜껑 손잡이 같네
오름 위에 돋은 무덤
노루귀 너도바람꽃 얼음새꽃 까치무릇
솔뚜껑 여닫는 사이 싯물 끓는 봄이 오네

그런 봄 그런 오후
바람 안 나면 사람이라
장다리꽃 담 넘어 수작하는 어느 올레
지나다 바람결에도 슬쩍 한 번
묻는 말
"셔?"

그러네, 제주에선 소리보다 바람이 빨라
'안에 셔?' 그 말조차 다 흘리고 지워져
마지막 겨우 당도한
고백 같은
그 말
"셔?"

"여름 바캉스 시즌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해수욕을 하는 편. 올해 무더위는 너무 심해 벌건 대낮에는 해수욕을 할 생각도 하지 않다가 날이 어둑해지면 그때 바닷물로 향하는 겁니다. 구멍조끼를 입은 채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노라면 그간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에게 인기 여름 휴양지는 베트남이 아닐까 싶어요. 비교적 저렴한 항공권에 이런저런 소소한 재미들, 맛집들이 즐비 하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베트남, 또는 태국 등지로 떠나는 듯 보입니다. 일본 여행은 어떻고요. 가깝고도 환율이 좋으니 엔화를 핑계로 역시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휴가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인기가 좀 수그러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바캉스 시즌보다 30만 명 가량이 더 이상 제주도에 휴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유는 몹소 느끼는 중입니다. 물가를 너무 올렸어요. 식사며 차량 렌트비, 무엇보다 숙소비 등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청계구리를 닮은 성격이라 제주도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제주에서의 추억은 여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저희 가족은 '함덕 서우봉 해변'에 자리를 잡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매일 매일 해수욕을 했던 즐거웠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여름을 앞두고 가족 회의를 하면 여름 휴가지 1순위는 늘 제주도. 그것도 '함덕 서우봉 해변'. 적당한 파도와 맑은 바닷물이 수영하기에는 안성맞춤이거든요. 느닷없이 안성탕면이 땡기네. 죄, 죄송합니다!

사할린 역시 올해에는 무더위가 제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모처럼 작렬하는 태양에 맞서 여유로운 바캉스를 즐기세요! 한국은 이런 말이 유행인데요. "라면 먹고 갈래?"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아, 얘기가 왜 또 이렇게 흘러온 걸까요?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조성용 화백 개인전 열려

지난 8월 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몰 쇼핑센터에 위치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미술박물관의 화백들의 도시' 갤러리에서 조성용 화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조성용 화백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란 주제로 진행 되고 있다.

이 전시회를 준비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의 예카제리나 피르소바 관장은 조성용 화백의 창작을 높이 평가하고 그가 사할린예술전문대 디자이너 학과장으로 활동한 교직경력 30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조성용 화가는 인사말에서 이 전시회를 열게된 계기를 설명하고 체호브 책 박물관 측에서 전시회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렸다. 이 전시회 개막 일에는 여러 미술인, 예술인, 사할린주 문화부 논라 브리크 장관을 비롯 조 화백의 창작을 좋아하는 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를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 화백이 최근 7년간 그린 그림 28점이 출품되었는데 전시회 개막 첫날에는 조 화백이 관람객들을 직접 안내하면서 본인의 작품에 대해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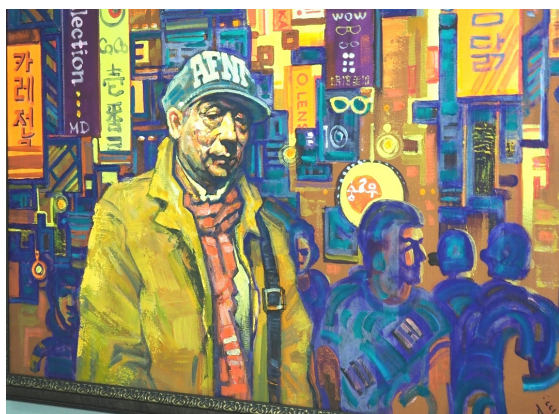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유독 풍경화가 많았는데 유럽 여러나라에 위치한 각 도시들과 사할린 섬을 비롯하여 러시아 크렘등을 배경으로한 다양한 풍경화에서 모두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작가가 작품들을 그리게 된 스토리와 맞물려 사용한 물감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풍경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마다 깊은 감명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조 화백은 자신의 작품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다.

조 화백의 작품들 중에 체르노고리아의 풍경과 베네치아 도시의 한 거리 풍경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의 다양한 모습들과 블라디보스토크와 루스키 섬을 연결하는 다리의 풍경, 어둡속의 도시 풍경 또한 무척 좋았다. 그리고 그는 몇 년 전에 주명수 화백과 함께 한국에서 개최된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그때 서울의 한 골목을 배경으로 하여 주명수 화백을 그린 작품도 이번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조성용 화백의 전시회는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개최된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참고로 조성용 화백은 1960년생으로 유즈노사할린



스크 출신이다. 이르크츠크예술전문대학교와 극동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화가동맹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여러 단체전과 개인전을 열었으며,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을 쌓았고 러시아연방 문화부, 사할린주 문화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의 표창장도 수여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국립한글박물관, 광복절 78주년 기념 특별전시 해설

'한글, 다시 우리 곁으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영수)은 광복 78주년을 맞아 광복절 기념 특별 전시해설 '한글, 다시 우리 곁으로'를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2016년부터 광복절을 기념해 박물관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유물을 통해 한글을 지켜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4년 만에 재개됐으며, 2022년 1월 개최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상설 전시와 전시실의 전면 개편 이후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전시자료의 관람이 가능하다.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이었던 '대한매일신보', 일제강점기 시대 교과서로 사용됐던 '조선어독본'(한글)과 '국어독본'(일어),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원고를 소개

하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 규범의 기틀을 닦은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 사전' 편찬 과정에 대해서 해설한다.

일제 강압 속에서 삶에 대한 고뇌와 독립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한글 보급에 일등 공신 역할을 담당한 '춘향전'·'금수회의록' 등의 딱지본 소설과 광복 이후 최초의 국정 국어 교과서인 '바둑이와 철수'(1948년) 등의 자료도 살펴볼 수 있다.

'한글, 다시 우리 곁으로' 특별 전시해설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진행되며, 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입구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해설 관련 문의(02-2124-6293).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1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История страны - моя история 2023".

В этом году в проект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25 человек с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дети, чьи родители являются участниками СВО.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ребят ожидает увлекат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и области,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традиционным видам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Кореи, кулинарии, курсы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лагеря являютс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М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рогами Дё Сон Ена

Если вы хотите сейчас, на пик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сезона, побывать наедине с природой, в тишине и безлюдье, то вам стоит прийти на выставку живописных работ Дё Сон Ена. Она стала второй страницей в летописи истории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в Сити-Молле.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появил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ак планируется, экспозиция здесь будет обновляться каждый месяц.

Никогда еще искусство не было так близко народу. Не сказать, что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возникший в толчее и суеете Сити-Молла, вызвал ажиотажный спрос н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все-таки картину в интерьер не принято покупать второпях. Но, хотя бы если замороченный покупатель притормозит свой бег у «Города художников» и с удивлением откроет для себя творчество талантливого земляка, уже неплохо. Потому как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большинство своих творцов не знает. А в реестре островных художников, который ведет куратор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музей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меж тем насчитывается уже сотня имен.

Хотя творчество Дё Сон Ена не знает проблематично, учитывая его тридцать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и столько же лет он отдал педагогике. Мы говорим «отделение дизайн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подразумеваем — Дё Сон Ен. Однако выставкой «Взгляд на мир» в «Городе художников» он обозначил завершение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свободу «вышел» с чистой совестью: за плечами более четырехсот учеников, которых поставил на крыло, некоторые уже сами стали членами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успешно «выставляют».



Для художника, наверно, лучшая награда — признание неповторимости его стиля, когда его манеру узнают безымянно. Живописные работы Дё Сон Ена узнаешь по мощи палитры природы, которую он одолжил у модели без потерь, по единению микро-и макрокосма, по широте неба и моря. Осозаемый, предметный, материальный мир под его кистью теряет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Только он так экспрессивно «портретирует» заросли иван-чая, за которым открывается огромное море, уходящее в горизонт. У него многоцветными складками, подобно спящему дракону, сбегает с неба на землю скалы, луна сусальным золотом «красит» носы гондол в Венецианском заливе, морская капуста сворачивается кольцами сухопутного осьминога...

«Взгляд на мир» предлагает прокатиться по маршрутам движения автора, заядлого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который щепетильно документирует сво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род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пенат до заграничья. Право, его насыщенные солнцем и морем пейзажи по «мотивам» любимых островитянами уголков (Тихая, Остромысовка, Бакланов камень и т.д.) над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рекламных постеров, как говорится, для повыш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И заметьте, среди пройденных им дорог по Европе и Азии есть и «Дорога к храму».

(Ирина ЦОЙ)

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завоевали 101 медаль в Китае

53 золотых, 27 серебряных и 21 бронзовую награды завоевали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ы на XV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в Харбин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частие приняли более 3000 спортсмен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хэквондисты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ех дней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а татами в четырех дисциплинах — личные и командные спарринги, а также разбивание досок в высоту

и техн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Пхумсе».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 схватках, что позволило завоевать 101 медаль различ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подготовку сахалинских тхэквондистов. Они отметили,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новь будут ждать спортсменов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Инопланетянин с корейской душой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Пак Со Хи начал свою карьеру на театральных сценах Токио.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сть принесла актеру роль в «Пачинко» — американском и южнокорейском драматическом телесериале. Более десяти лет Со Хи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Япони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около 600 тысяч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тались в Японии и стали частью населения — зайничи («зайничу» означает «проживающий в Японии», и стал синонимом этн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тране).

Сохи, как твоя семья оказалась в Японии?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мои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приехали в Японию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Скорее «выжить». Со стороны отца семья поселилась в Йокогаме, занималась, в основном, строительными работами. Семья со стороны моей матери, в Дзээцу, очень заснеженной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Японии, занималась свалкой металлолома.

Сталкивался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зайничи скрывают свою личность и используют японское имя, мой отец отправил меня в японскую школу с корейским именем. Это было настоящим приключением. Конечно, дети придирались ко мне, потому что мое имя отличалось от их имен. Доходило до того, что готов был драться с любым, кто произнесет вслух мое имя.

Триединство (корейское, японское, американское) в чем у тебя выражается?

Всегда чувствовал, что я точно не японец. Инопланетянин. Тем временем, в Корею меня считали японцем. Сейчас живу в Америке, но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американец, скорее,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зайничи. Все еще ишу себя как личность.

Дискриминация повлиял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твоей личности?

Это сделало меня сильным. Заставило глубже воспринимать «жизнь». Сделало меня хорошим актером. Помогло обрести широкий взгляд на мир. Париж, Лос-Анджелес,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Лондон, я представляю себя там своим, когда читаю рассказы и романы.

В чем особенность тво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Дебютировал,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актер в Японии, но продолжаю работать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режиссерами. У меня нет какого-то определенного способа овладеть профессией. Для меня слушать, дышать и расслабляться — э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в актерской игре. В Японии актер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двумерному, как у персонажа аниме. Мой актерский стиль скорее трехмерный, естественный... Он больш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американскому стилю.

Что изменилось для тебя с тех пор, как «Пачинко» сделал тебя знаменитым?

Как актер, получил доступ к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ролей. Как Сохи Пак, я теперь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мира. Разрабатываю идею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сериала «Актер Сохи Пак: прогулка по корейским городам мира». Кажется, сейчас лучшее время для этого.

Почему роман называется «Пачинко»?

Пачинко похож на автомат для игры в пинбол в японском стиле. А салон пачинко похож на казино. Да, это азартная игра. Можно как-то поставить на это деньги. Иногда вы выигрываете, но чаще вы теряете деньги. Большинство владельцев салонов пачинко — зайничи. Бизнес пачинко считается бизнесом второго сорта, поэтому для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зайничи — это была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бизнеса. Здесь замешаны большие



деньги.

Я не спрашивал Мин Джин Ли, почему она назвала эту историю «Пачинко». Но думаю, что пачинко — более сильное ключевое слово, которое может выразить культуру зайничи. Кроме того, пачинк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авантюру, которая может перевернуть вашу собственную жизнь. Жизнь — это игра, верно? Мои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прибыли в Японию на маленькой лодке. Они могли бы просто умереть, если бы эта маленькая лодка перевернулась посреди океана.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создали идеа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своей жизни, вы все равно можете проиграть. Наоборот, при миним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е можно выиграть по-крупному. Пачинко — это азартная игра, но это и жизнь.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 название.

Для тебя что значит «зайничи»?

Если буквально, «зайничи (在日)» означает «Быть в Японии», «Существующий в Японии». Собственно, зайничи-кореец и есть правиль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Нет «зайничи-южнокорейцы», «зайничи-северокорейцы», потому что мы приехали в Японию до того, как Корея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Южную и Северную.

Есть ли разница между жизнью корейцев зайничи в дораме и в реальности?

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в том, что мы не говорим по-корейски в семье, как в дораме. Мы просто не умеем. Даже мои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в первом поколении вообще не говорили по-корейски.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Япония заставила говорить по-японски. Япония лишила и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торое поколение и молодежь, если они не ходили в корейскую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они не говорят по-корейски. Я поехал в Сеул на 6 месяцев, чтобы вы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когда мне было 28 лет.

Как готовился к роли родителя и ребенка?

Мой персонаж Мозасу из того же поколения, что и мой отец. Я видел, каким был мой отец с собственной матерью. Память сформировала мой характер. Актер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 это воображение. Кроме того, в книге «Пачинко» Мозасу —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хорошо прописанных персонажей. Так что, для меня все ключи к становлению моего характера были заложены в книге.

Влияние «Пачинко» на общество велико?

Зайничи-корейцы — все же маленькое меньшинство. Но, благодаря «Пачинко» теперь весь мир узнает о зайничи. Для меня это многое значит.

В каких проектах планируешь снимать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Есть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тоже уже снят, но TOKYO VICE, выйдет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Играю журналиста и возлюбленного Ринко Кичуки,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номинацию на Оскар за роль в BABEL. Также, буду играть в короткометражном фильме о семье зайничи и их путешествии из Японии в Корею. Особенность этого короткометражного кинопроекта в том, что продюсер, режиссер и все актеры — зайничи. Разрабатываю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под названием «Через К-версию: Актер Сохи Пак гуляет по корейским городам мир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Лана Тянь, спецк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аммит РК, США и Японии состоится 18 августа в Кэмп-Дэвиде

Главы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встретятся 18 августа в Кэмп-Дэвиде, резиденции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в штате Мэриленд в ста километрах от Вашингто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9 июл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Проведение полноценной встречи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в ходе краткой трёх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в кулуара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мае в японской Хиросиме. Ожидается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м угроза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ешении глоб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осетит Кэмп-Дэвид впервые с 2008 года, когда там побывал тогдашни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Ли Мён Бак.

Лидер КНДР встретился с делегацией Китая

28 июля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он Ын встретился в Пхеньяне с делегацией Китая во главе с членом Политбюро ЦК КПК,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секитайского собрания народ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Ли Хунчжуну. Делегация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для участия в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заключения перемирия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одтвердили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дальнейшему укреплению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им Чен Ын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итаю за помощь, оказанную его стране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Он сказал,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сегда будет помнить вклад, сделанный Китаем в «самый трудный период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подтвердили готовность справиться со «слож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туаци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Ким Чен Ын поблагодарил китайского лидера Си Цзиньпина за личное послание, содержание которого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не разглашается. Между тем, как сообщила китайская газета «Жэньминь жибао», Си Цзиньпин обещал укреплят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еки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изменений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е. После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Ын устроил приём для делегации Китая, который, как сообщает ЦТАК, «прошёл в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В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заработал сервис Smart Pass

28 июля во втором термина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заработал сервис Smartpass,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пассажирам, вылетающим из страны, не предъявлять паспорт и посадочный талон. Личность человека идентифицир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технологии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нуж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специа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Incheon Airport Smartpass или в киоске в аэропорту за 30 минут до пользования услугой. Регистрация действует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и для тех, кт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ыделены отдельные выходы в зал вылета.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оснащены 16 выходов на посадку.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ервис доступен для пассажиров шести авиакомпаний - Korean Air, Asiana Airlines, Jeju Air, Jin Air, T'way Air и Delta Air Lines. До апреля 2025 года к нему должн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все авиа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щие в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связанных с жарой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связанных с жарой.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период с 26 по 28 июля 178 жителей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братились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с жалобами на недомогание, вызванное сильной жарой. С 20 мая, когда нач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система контроля, число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жары составило 938 человек.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зафиксированы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17 случаев гибели людей, связанных с жарой. Эт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ожилые сельские жители, которые в жаркое время дня работали в поле.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умерли семь человек. Пять человек утонули во время купания в водоёмах. 30 июля в Сеуле в одном из районов без электричества остались 1.710 квартир из-за перегрузки энергосистемы. Аналогичные ситуации наблюдались в Ёни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Метеорологи ожидают,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ильная жара выше +33°C сохранится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Фильм «Контрабандисты»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 млн человек

За три дня с 28 по 30 июля фильм «Контрабандисты» (Smugglers)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Рю Сын Вана посмотрели в кинотеатрах РК 1 млн 170 тыс. человек. На него пришлось 53,9 кассовых сборов.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Disney и Pixar «Элементарно». Его посмотрели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дня 360 тыс. человек.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фильм «Миссия невыполнима: Смертельная расплата, Часть первая» с Томом Круз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который посмотрел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300 тыс. человек.

(RKI)

Пхенья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во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Сеул, 28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масштабный военный парад в честь 70-й годовщины подписания перемирия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сообщили в пятницу 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свои новейшие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МБР) и беспилотники в качестве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й военной мощи.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ЦТАК), в присутстви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елегаций из Китая и России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поднялся на обзорную трибуну, чтобы наблюдать за военным парадом на площади Ким Ир Сена поздно вечером в четверг по случаю Дня Победы. Он не произнес долгожданной реч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На параде Север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ередов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и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такие как МБР «Хвасон-17» на жидком топливе и МБР «Хвасон-18» на твердом топлив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еспилотные самолеты наблюдения и многоцелевые ударные дроны зависли над головой в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х полетах,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и были недавно разработаны и произведены», — сообщило ЦТАК. Оно также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о МБР «Хвасон-18» как «самое мощное и основное сред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страны для «сокрушитель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ядерным угрозам со стороны ее враг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гласила китай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на свои торжества, отмечая первых извест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с момента жесткого закрытия границы Пхеньяном из-за COVID-19 в начале 2020 года.

Итоги визита глаз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еул, 31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ращивает усилия по налаживанию более прочных связей с Россией, поскольку Север стремится расширить с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возглавляемой Россией коалиции против США.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годовщины, посвященной празднованию того, что Север называет своей победой над силами ОО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ША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950-53 годов, пишет газета The Korea Herald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а сообщили через два дня после празднования, что режим будет укреплять обмен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двумя своими крупнейшими союзниками, чтобы справиться с меняющимся глобаль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ландшафтом. Пхенья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послание адресовано, в частности, Москве, а не Пекину — своему традиционному союзнику —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ША.

«В ходе беседы также были искренне обсуждены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возникающие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и т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коопераци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ссылаясь на встречу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а и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Сергея Шойгу.

Встреча,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за день до празднования в четверг, стала первыми переговорам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 тех пор, как в начале 2020 года началась пандемия COVID-19. Север начинает ослаблять пограничный контроль. Кита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Ли Хунчжуну,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Политбюр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итая, состоящее из 24 членов, также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Ли коротко поговорил с Ким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в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ся межкорейскими делами, заявило, что Пхеньян четко дал понять, что относится к России серьезнее, чем к Китаю, ссылаясь на освещ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бытий четверга, которые включали церемонию и ночной военный парад с демонстрацией оружи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встречался с Шойгу четыре раза во время меро-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Сергеем Шойгу и китайская группа во главе с Ли Хунчжуну, членом политбюр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итая, прибыли в Пхеньян,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Дня Победы.

26 июля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вел для Шойгу экскурсию по выставке вооружений, на которой бы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новые передовые виды оружия, включая МБР и беспилотный летательный аппарат, который, по-видимому, создан по образцу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молета наблюдения Global Hawk.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ыпустила МБР «Хвасон-18» ранее в том месяце после ее первого испытания в апреле.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й тип МБР входит в числ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которые Север пообещал разработать, включая военный спутник-шпион и атомную подводную лодку.

Север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недавний визит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с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способной нести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порт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законным условиям для применения ею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сентябре режим Кима принял новый ядерный закон, разрешающий превентивное примене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звав свой статус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еобратимым».

При правлении Кима Север провел 14 военных парадов, включая мероприяти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оследний парад состоялся в феврале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75-й годовщины основания сво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Север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ил МБР «Хвасон-18» во время парада.

прият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с Ли встретился только один раз. Для Кима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Шин Чон Ву, старший аналитик Корейского форума по оборон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казал, что последнее событ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сплочение северокаорейцев против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явном разрыве в том, как Пхеньян хочет развивать связи с Москвой и Пекином.

«И это обмен. Россия хочет оружия, 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хочет топлива, которое ей нелегко достать», — сказал Шин, имея в виду войну России в Украин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веденные в связи с ее программами созд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Шин привел в пример тур по выставке в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й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л для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Шойгу, как четкое указание на то, что, по словам Шина, является неотлож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для двух союзников.

Хон Мин, директор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казал, что Пхеньян и Москва могли бы продолжить свою встречу совместными военными учениями, хотя они будут ограниченными по масштабам.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то, поможет ли Москва Пхеньяну с оружей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сказал Хон.

Повторные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являю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того, что режим «чувствует жар» от более сильной коал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США и Японии, добавил Хон, имея в виду группу, которая работает над разоружени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хеньян отказывае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ними, требуя, чтобы Вашингтон сначала ослабил санкции или свою антисеверока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На брифинге в пятниц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ША Джон Кирби заявил, что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идят мал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дипломатии в вопрос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что три страны, включая Южную Корею и Японию, стремятся наращивать во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Лишь треть южнокорейцев ощущают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и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в 2015 году Корей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не очень довольны своей жизнью. Лишь 34,7% из 226.545 респондентов старше 19 лет считают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и. В результате индекс счастья составил в РК 6,68 балла из десяти возможных. Среди мужчин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35,4%, что на 0,8% выше, чем среди женщин. Эксперт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чем старше человек, тем менее счастливым он себя считает.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читающих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и, составивший 39,5%, отмечен 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19 до 44 лет, а самый низкий – 25,7% - старше 75 лет. Индекс счастья отражает ситуацию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где достаточно остро стоит проблема бедности и наблюдается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уицидов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Степ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жизнью возрастает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доходов. Кроме того, семейные люди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гораздо более счастливыми, чем одинокие.

На полгода увеличилась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звучили на сессии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полугодия 2023 года, которую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ндикатором того, что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ы была выбрана верно, стало увеличение средне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которая теперь превысила 71 год.

В основе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егла идея раннего выявления опас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и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лечения от опасных недугов. Так, почти 78 тысяч человек уже прошли углублен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в центрах соврем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обследовать 140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Основной упор делается на обнаружение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и болезней системы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 это самы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причины летального исхода,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итог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тали получ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помощь,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з 1098 сложных операций в этом году 938 про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Новые методы внедрились в онкологию, офтальмологию, акушерство и гинеколог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зяли под контроль время работы каждого врача. Функцию формирования расписа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ередали от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проектный офис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Эффективным новшеством стал лист ожидания: пациентам, попавшим туда,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должны предложить удобное время для визита к доктору.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подходу количество принимаемых больными и поликлиниками пациен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30 процентов.

По реш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для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региона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оставлен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За пациентами,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 на учете, закрепляются личные помощники по всем медицинским вопросам.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или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помогают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напоминаю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могают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и решают другие важные для пациентов задачи.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работе моби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бригад,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повыс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82 специалиста выезжают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и ведут прием на местах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штатный врач заболел, ушел в отпуск и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тавка сейчас свободна. Список врачей формируется исходя из потребностей пациентов в том или ином районе.

– На каждой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я слышу обращения, что люди не могут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Раньше этот вопрос стоял очень остро, теперь эта проблема постепенно уходит. Ситуация улучшается,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статистика, и анализ поступающих жалоб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каналы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включая мои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крыть больную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вопрос поможет укрепление кадровой базы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менно такую задачу я ставлю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здраву. На островах у врачей конкурентные заработные платы, порой в разы более высокие, чем на материке, для медиков готов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закрыть свободные ваканси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 сахалинских строителей будет много работы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и обозначил перспективы на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еред строите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ят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по вводу не менее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ежегодно, в том числе в целях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а также по возведению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устройству коммунальной и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удерживает рекордный результат –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жилья, или порядка 7 тысяч квартир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реть от этого объема – социальное 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которое строится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и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 расселении непригодных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мов позволила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обрена поддержка из российского бюджета – 19 млрд рублей. Это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сред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овоселье с 2021 года отметили уже более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пределены строи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чтобы держать высокую планку по вводу жилья н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в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ими можно с помощь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кар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ект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рупных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со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социальной, дорожной

и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К примеру, в юж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озводится микрорайон «Горизонт», а в северной – «Уюн парк».

– Площадку «Уюн» начал осваивать крупный застройщик – «ПИК» возведет 12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Там же завершается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еще на 18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Это перспектива ближайших трех лет.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роители активно строили жилье. А мы поможем реализовать квартиры с помощью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и други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делают цены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приемлемыми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семей,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ов.

На островах вводится также множество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этом году сдали детскую школу искусств и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в Аниве,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Маяч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 конца 2023-го должны ввести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школу на 400 мест и дом-интернат в Шахтерске, сельски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Ново-Троицком и Адо-Тымово, спортивную школу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школы в Ногликах и Курильске, детский сад в Крабовозовском, на Шикотане.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ют бизнес. Так,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Газпром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озводят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и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С помощью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ссии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яти поликлин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лмске и Углегорске, а также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и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Один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и значимых концессионных объектов – это передовой кампус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рядчик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уже определен, активная фаза работ начнется в август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найден подрядчик, который возведет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также о проектах в сфере промышл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ось масштаб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ьездной дороги. Первый этап – участок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 километров – должны сдать уже в авгус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 центр города будет освобожден от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будут выноситься на обьездную дорогу, а земли в городе будут отданы под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 Вся работа направлена, чтобы в наш регион привлекались инвестиции, создавалис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увеличивалась численность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вязывают свою жизнь с островам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 сахалинских строителей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и на годы вперед будет много работы. И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вас в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Мы привлекаем круп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стройщика, н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пании ничем не уступают «ПИК». Если у вас возникают вопросы или сложности, немедленно звоните «в колокольчик». Мы всегда открыты для диалога с бизнесом и готовы оперативно находить решения вместе. Нужно интегрировать все силы, чтобы сделать работу 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о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и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торговле озвучили на сессии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полугодия 2023 года, которую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одни из лучших показател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картофелем, тепличными овощами, яйцом куриным. Развивается торговая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гд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реализуются с минималь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ой.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извели 27 тысяч тонн молока – на 6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обусловлен реализацией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ввел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на 1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и завод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олока мощностью 120 тонн в сутки. «Совхоз Корсаковский» увеличил молочную продуктивность коров.

Выросли показатели 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собрали почти 5 тысяч тонн.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стровной продукцией растет благодаря внедрению новых агротехнологий и применением высокопродуктивных сортов.

–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да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ых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повышены ставки субсидий на внесение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и проведение мелиора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 механизм аванс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нна Павл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храняются также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яйца курино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 более 61 млн штук) и картофеля. По этим направ-

ления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лючевой фактор высокой урожайности картофеля –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мян элитной репродукции,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происходит сортообновление и общее оздоровление семенного фонда. Затр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мян островным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компенсируют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ольше четверти всег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которое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изведено остров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азвитие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зволяет круглый год обеспечивать островитян качественной и свежей продукцией, а также сдерживать цены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расширяется торговая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Сегодн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153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 где 40 наименований самых ходовых продуктов продаются с минималь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ой. В перечень входят хлеб, мясо, птица, рыба, яйца, сливочное и подсолнечное масло, мука, крупы,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колбасы, картофель, овощи. Покупатели могут легко найти социальные товары по ярким цветным ценникам.

Кроме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в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также входят павильоны региональ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мобильные торгов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отдаленных микрорайонах и селах.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ярмарок, что также поддерживает ценовую доступность.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годня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с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м центром,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круглый год обеспечиват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вежей и 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ей. В составе объекта – современные складские помещения, способные создать температурный режим для самых разных видов продуктов,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площадью для пище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С запуском агропарка сократятся потери при хранении и увеличится переработка продукции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ат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ссийский научный фонд объявили о прове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грантов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проведение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оисков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тдельными малыми научными группами. Цель –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и поддержка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убъекта Федерации. Порядок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утверд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намерены поддержать авторов работ в приоритетных для региона отраслях знаний. Среди них – рацион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и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экология и вопросы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общественные, гуманитарные и социальные науки; математика, механика и физика, энергетика; медицина, сохранение здоровья, технологии, увеличивающ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нвалидов;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животноводстве 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е, переработке и хранен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цифровое развитие; космические и ави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нженерные науки и робототехника; нов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ефтепереработка и нефтегазохимия; инновационное развитие аква- и марикультуры;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го, лесного, угольного, рыбного кластеров.

–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ученые, чьи работы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нашей области. Например, помогут без ущерб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и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их. Внедрять перспе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част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добычей и переработкой нефти и газа. Отмечу, что сейчас мы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запуще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иступаем к создан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Tech» на базе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то будет научны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риму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нашего кампуса. Это поможет поднять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гионе, соз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для победителя конкурса составит два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умму в равных долях выделя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ссийский научный фонд. Срок реализаци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оисков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 не более двух календарных лет.

Более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нкурсе размещена по адресу: <https://minsvyaz.sakhalin.gov.ru/web/app/?id=281>.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28 июля 2023 года по 2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일본에 199엔 수모, 할머니는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미쓰비시로 강제동원된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30일 고된 생을 마감했다

김재림 할머니는 배고픔 속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특히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당시 사촌 언니 이정숙을 포함해 동료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지켜봐야 했다.

해방 후에도 고통이 이어졌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 기구는 2015년 2월 소송에 나선 원고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각 199엔을 지급했다. 모욕이었다.

후생연금 역시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땀의 댓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70년이 지나서야 탈퇴수당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화를 무시한 채 당시 액면가 그대로를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1973년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해 화폐가치에 따른 변동은 감안 해 지급하도록 했지만 유독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인에 대해서만 물가 환산 규정에서 배제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적 공분을 산 99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피해뿐 아니라 해방 후에도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018년 12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사건은 4년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으로 ▲일본제철 2건 ▲미쓰비시중공업 3

건 ▲후지코시 3건 ▲히타치조센 1건 등이다. 이 사건들 역시 최소 4년 5개월~4년 7개월째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에서 기존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 한 바 있다.

김재림 할머니 사건 역시 원고와 피고만 다를 뿐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구조와 맥락이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즉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헌법 제27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에 벌써 세 번째 계류 중인 이 사건을 4년 7개월째 판결을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

김재림 할머니 사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원고 4명 중 심선애(2019.2.21.) 할머니, 양영수(2023.5.11.) 할머니에 이어 김재림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이제 피해 당사자는 모두 숨진 채 88세인 유족한 분만이 남게 되었다.

일본 정부에 199엔 수모를 당한 김재림 할머니가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바램을 끝내 저버렸다.

강조하지만 대법원도 명백한 가해자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신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

2023년 7월 31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최재형 · 최엘레나 부부, 100년 만의 합장식

8월 14일 '백년만의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 표어로 예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8월 1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흉과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모셔 와, 원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최 엘레나 여사의 옛 사진을 AI로 복원한 이미지 (자료 국가보훈부)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조성되었으나, 이른바'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현재까지도 해당 묘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이후 유족들은 해당 묘의 복원을 계속 해서 희망해 왔으나,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순국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7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해 유해를 찾지 못한 최재형 선생을 부인 최 엘레나 여사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아홉 살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 주로 이주한 최재형 선생은 사업가로 자수성가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다.

러일 전쟁 이후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

회(同義會)를 조직하고 총재가 되어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대동공보(大東共報)를 인수해 재창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 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大恩人)'으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는, 3남 최 발렌틴과 5녀 최 올가의 회고에 따르면 1897년경 최재형 선생과 결혼한 이후 8명의 자녀를 낳고, 선생의 독립운동을 내조하였으며, 안중근 의사 순국 이후 남은 가족들을 보살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남편인 최재형 선생의 순국 이후에는 자녀들과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다 1952년 사망했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국가보훈부는 최재형기념사업회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유해 수습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가 8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실 예정이다.

또한, 최재형 선생이 순국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선생 기념관(구 최재형 선생 고택)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흙을, 11일 국내로 들여와 부부를 최고 예우로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보훈부는 "특히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지난 7월 중순 키르기스스탄 현지에 의회 외교를 위해 방문한 정우택 국회의장의 협조 요청과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의 대국민 모금 운동과 LG유플러스의 후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적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에 '백년만의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 표어로 부부 합장식이 거행되며, 광복회 등 독립 관련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현충원 현충관에 국민추모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추모·참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여년만에 순국 추정지의 흙과 배우자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와 서울현충원에 부부합장묘를 만들게 되어 너무나 뜻 깊다"라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유해마저 찾을 수 없었던 순국선열을 단 한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순국선열을 예우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좋은 한국어 읽기교재 만들기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 교재 중에 좋은 교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부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어 교재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분 중에는 최근의 교재를 못 본 사람이 많아서 저는 최근의 교재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교재에는 과거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특히 세종학당재단이나 국립국어원, 재외동포청 등 국가기관에서 만든 교재들은 여러 학교의 전문가가 함께 만들었기에 신뢰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연구도 많습니다. 기본어휘 자료, 문법교육 자료, 한국어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교재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좋은 교재가 부족하다는 말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어 읽기교재는 매우 부족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부족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각 단계별로 다양한 주제의 읽기교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 교재에 읽기교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다면 한국어 읽기교재의 문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읽기교재는 왜 부족할까요? 이걸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작권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읽기교재는 다른 기능의 교재에 비해서 저작권 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권,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읽기교재를 만들려면 많은 글이 필요하고, 좋은 글이 필요한 겁니다. 저작권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교재의 저자들이 창작한 글을 읽기 내용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한계도 있고, 실제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읽기교재에 실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찾아서 인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신문기사 이용도 쉽지 않기에 읽기교재 지문 선정도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읽기교재를 만들 때는 사용하고 싶은 글을 쓰신 분께 연락을 드려 허락을 받았습니. 대부분 제가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님이었는데 정말 흔쾌히 본인의 글을 외국 학생이 읽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기뻐했습니다. 본인의 글이 널리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교재에 실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 글도 한국어 교재에 실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축스러움도 있습니다만, 제 글이 교재의 한 부분이 된다면 기쁜 일입니다.

저는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허락을 받고, 좋은 글을 널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에 실는 일이라면 조금 더 관대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허락은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실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한국어 읽기교재를 만들고 싶은 분께 권합니다. 우선 본인이 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학생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글을 찾으면 차근차근 모아 두세요.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글을 쓴 분을 찾아서 가능하면 만나세요. 만나기가 어려우면 꼭 연락을 드리세요. 그렇게 잘 만든 책으로 좋은 글을 읽고픈 학생들을 만나면 됩니다.

저는 저작권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이라는 벽 때문에 좋은 글을 학생이 읽을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실린 글을 읽고 그 책 전체가 읽고 싶어진다 좋은 일 아닌가요? 제 글을 읽기교재에 실으시는 것은 환영입니다. 제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В последнюю субботу июля прошел триатлон «Анива спринт 2023»

В селах Кубанец и Песчанс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ш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риатлону «Анива спринт».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09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лет и старш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уже в седьмой раз. Ежегодно на старт выходят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Триатлон на спринтерской дистанции «Анива спринт»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этапов: плавательного, велосипедного и бегового.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750 м вплаву, 20 км на велосипеде и 5 км бегом. Выступить можно было в личном и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а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абсолютным лидером ста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Кирилл Смирнов. Он преодолел все дистанции за 01:05.13,2 секунды. Вторым к финишу пришел Антон Бакай — 01:10.17,54, замкнул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Максим Юрачковский — 01:10.54,81.

Среди команд лучшее время показала команда «Эдельвейс» (01:00.45,44), второй результат у XFIT (01:05.15,06), третьей стала команда «СветОли» (01:10.16,62).

유즈노사할린스크, 참전 용사 및 특별 군사 작전 참전 군인들과 그의 가족을 위한 무료 견학투어 진행

8월에는 사할린의 모든 전투 참전 용사와 특별 군사 작전 참전 군인들과 참전 용사의 가족을 위한 무료 1일 견학 투어가 진행된다고 사할린지역 전투 참전 용사와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전투 참전 용사 협의회에서 밝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20일에는 개구리 자연 기념물 근처에서 참가자들끼리 차를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는 투어는 10시에 시작된다.

8월 23일에는 "사할린의 다양한 얼굴" 프로그램으로 투어가 열리며 주향토박물관과 사할린 서비스 전문학교를 방문하고 '체크-해'라는 요리 마스터클래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투어는 9시 30분에 시작된다.

견학투어는 25-30 명을 수용 할 수 있는 편안한 버스를 이용하며, 참가자들의 제안에 따라 모임 장소가 결정될 예정이다.

Бесплатные экскурсии для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их семей пройдут на Сахалине

Бесплатные одноднев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Сахалину для всех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их семей, а также для членов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ойдут в август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Совете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в Афганистане и други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 20 августа на природный памятник «Лягушка» с чаепитием. Начало экскурсии в 10:00.

· 23 августа «Многоликий Сахалин» с посещением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с участием в мастер классе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а «Чек-Хе». Начало экскурсии в 9:30.

Уточняется, что экскурсии проводятся на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автобусах вместимостью 25 — 30 человек. Место сбора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о по предложению участников экскурсии.

사할린주 인구 자연 감소,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736명으로 집계

2023년에 들어서서 5개월 간 사할린주의 자연 인구 감소는 736명으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보다 373명 감소한 수치라고 사할린주 통계국에서 발표했다.

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1월 부터 5월까지 사할린 주 내에서 1,854 명의 신생아가 등록되었고, 2,590명의 사망자가 사망신고서에 등록되었다고 명시했다.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이 기록된 지역은 쿠

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이다.

결혼에 관해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사할린 주에서는 1,213건의 결혼과 1,135건의 이혼 사실이 등록되었다. 작년동안의 동일 기간에는 결혼 1,154건과 이혼 992건이 있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이민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7,399명이 사할린 주로 이주했으며, 그 중 42.5%가 영구 거주를 위한 이주였고 이주자중 이탈한 인원은 7,308명이며 그 중 79.5%는 이전 거주지에서 등록 해제되었다. 이에 이주자 증가는 91명이었다. 그리고 사할린 지역 내에서 2,292명이 거주지를 변경했다.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а 736 человек за январь-май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ять месяцев 2023 года составила 736 человек, что меньше на 373, чем за январь-май 2022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тата.

В ведомстве уточнили, что с января по май 2023 года в органах ЗАГС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1854 родившихся и 2590 умерших.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то касается браков, то их на островах за пять месяц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1213, а разводов 1135.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и показатели составили 1154 браков и 992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май 2023 года в область прибыло 7399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42,5%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730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9,5%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91 человек. В предел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2292 челове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